

## 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 성경공부: 장년 성경공부 다시 시작합니다(3시 5분, 유아실)

◎ 섬김: 찬양대로 교회를 섬길 성도들은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소프라노 각 1명, 테너, 알토 각 2명 (문의: 정혜숙, 박후임 집사)

◎ 협조: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한 작은 게라지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품들을 기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5월 26일(주)~6월 16일(주일) 담당: 이정인 집사, 김승훈 형제

◎ 성경완독: 고대아 권사. “네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전도서 12:2 현대인의 성경)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5월 새벽 기도회 본문

1일: 딤전 1:1-11 몰두해야 할 바른 교훈, 복음

3일: 딤전 2:1-15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10일: 딤전 6:11-21 거룩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17일: 딤후 3:10-17 말씀은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24일: 시 144:1-15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된 백성의 삶

31일: 시 150:1-16 호흡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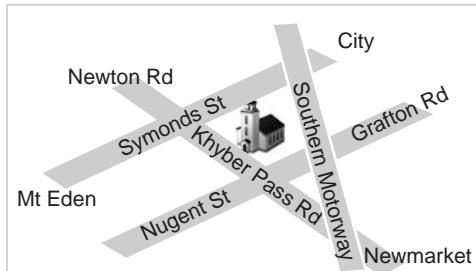


밀알장애인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http://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 2013년 5월 12일 (어버이주일)

15권 19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다. 그냥 자 버릴까 하면서 뒤척이고 있는데,  
문득 아니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회로 향했다.

찬송을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는 벅찬 눈물이 쏟아졌다.  
사실 요즈음 날씨가 좋지 않아 SUSHI 가게도 그저 그렇다.

SUSHI가 잔뜩 남아있는 진열장을 보면서 중얼거리듯,  
“하나님 조금만 더 채워 주시지 요즘 정말 힘들어요. 비 좀 멎게 해주세요.”

이런 답답한 마음인 게 요즘 내 마음이다.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나를 깨어나게 하셨다.

허한 내 마음의 빈자리를 물질이 아닌 그 무엇보다 값진 말씀으로 채워 주셨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디모데 전서 6장 11~21)

이 새벽 깨워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돌아오는 차안에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린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하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예 암니더 주님!

저도 주님 엄청 사랑합니데이.

- 박혜숙 집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28:1, 3~4
개회송	인도자
참회의 기도	찬양대
※ 찬송	다함께
※ 성시교독	찬송 / 비전
※ 신앙고백	헌금기도 / 인도자
찬송	광고 / 인도자
대표기도	축도 / 심창진 목사
성경봉독	현석호 장로
찬양대찬양	인도자
설교	루기 1:6~18
찬송	나무십자가찬양대
헌금기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교회소식	이태한 목사
※ 응답송	579장
※ 축도	다함께
	인도자
	인도자
	인도자
	인도자
	다함께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김규연 형제
성경봉독 / 딥후 1:9~14
설교 / 비전의 모델 / 심창진 목사
찬송 / 비전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김현주 집사
성경 / 시 139:1~24
설교 / 주의 생각 거기서도 / 진혜령 전도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07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헌금 지난주: \$ 420.00  
총계: \$ 631,248.29

### ◎ 5월 교회일지

월식 기도회:  
5월 1일(수)  
어린이 주일:  
5월 5일(주일)  
선교 학교:  
5월 10일(금)  
어버이 주일:  
5월 12일(주일)

### ◎ 5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박일영/임혜자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김영옥 권사  
다음 주일 1부: 고성일 집사  
다음 주일 2부: 정덕수 장로  
5월 22일 수요기도: 최득수 집사  
5월 22일 애찬기도: 정옥자 권사  
5월 26일 1부: 김순자 권사  
5월 26일 2부: 김승훈 형제

## 금주의 기도제목

### 1.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선교 훈련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도록,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성전 건물 이전 계획이 주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직장을 찾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직장을, 새로이 시작하는 비즈니스에 행통함이 있도록,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약함 속에서 강함을 체험하도록.

### 2. 뉴질랜드와 해외를 위해

뉴질랜드의 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교민 경제가 살아나도록, 뉴질랜드 교회학교 교육이 오직 예수로 바뀌도록, 하나님 없음과 주체사상을 외치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소망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갈보리 공동체는 각 나라를 이름으로 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공동체의 나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살피고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일에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바누아투에 대하여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바누아투 공화국은 오세아니아에 있는 섬나라로 포트빌라가 수도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98%) 멜라네시아계에 속하며, 솔로몬 제도, 호주, 뉴질랜드와 이웃 국가입니다. 언어는 혼합 영어인 비슬라마어인데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지배를 받다가 1980년도에 독립하였기 때문에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도 혼합니다. 이 외에도 100개 이상의 지방 언어가 있습니다. 다수의 인구가 수도인 포트빌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문화적으로는 파푸아 뉴기니의 영향도 받았으며, 전통적인 부족 문화도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특히 선사시대 문화는 모든 자연적인 재앙이나 인간이 일으킨 불행한 일을 주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신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축제를 했고 AD 1265년에 매장된 귀족의 정교한 매장 실에서 인간을 재물로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누아투의 최근의 역사는 어둠의 그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험가들을 바로 뒤쫓아 모험가들은 고래와 백단을 포획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영혼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몰려오게 되었고 유럽인들은 독감, 홍역, 성병 등의 전염병, 노예무역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섬 주민들에게 단연 가장 비참한 영향을 미친 것은 '흑인 노예 납치'였으며 수많은 니-바누아투인들이 설득, 납치되어 퀸즐랜드나 피지의 사탕수수 농장, 혹은 면화농장으로 끌려갔고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아픔이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행복지수가 1위에 오른 적도 있으며, 이것이 바누아투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니-바누아투(바누아투 사람)는 음악을 사랑하고 그들의 악기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하므로 기독교가 전체 종교에(이단포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술적이며 신화적인 면이 혼합되어있기도 합니다.

### 기도

-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선교가 진행되도록.
-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바누아투인들이 진리에 의하여 온전히 불들림 받도록